

귀국보고서

파견대학	산호세대학교
파견기간	2019.03.05. ~ 2019.06.15.
프로그램	학기제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유학생 보험, 1달 내 무비자 체류 이후 매달 1달씩 비자연장, 왕복 항공권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썬 스크린, 110V 어댑터, 옷(긴팔옷 포함), 수건, 슬리퍼, 동전지갑 등.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현지인들 간에 대화에서는 Cebuano 사용, 외국인과 대화 시 영어 사용.

-외국인들에게 문화적으로 개방적이고 친절하다. 가족중심의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생활력이 강함.

-물가의 경우에는 한국의 약 1/10정도로 생각하면 편하다. 현지 선생님들은 한끼에 50페소(1150원)정도를 지출한다고 한다.

나. 파견 대학

-필리핀 세부 소재의 산호세대학교

나-1. 대학 선택 이유

-다른 해외대학에서 제공하는 파견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전공수업이 없고 영어에만 중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케줄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어 코스에 따라 성실히 잘 따라만 간다면 영어회화실력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했다.

나-2. 공항 - 학교

-세부 막탄국제공항 - CPILS, University of SanJose Recolatos.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업은 수강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어학원과 학교에서 사전에 만들어 놓은 스케줄에 따라 수업을 듣게 된다. 월~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 반까지 총 12개의 수업이 있으며 그중 9~12교시는 자습시간이다. 9교시는 학생의 기호에 따라 스페셜 클래스로 대체할 수 있다. 스페셜 클래스

는 Pops English, Movie Class, Speech Class가 있다. 목요일 오후 2시~5시에
는 산호세대학교로 이동하여 2개의 강의를 듣는다. 금요일에는 전체적으로 모
든 수업이 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되며 오후 1시~3시까지 필리핀 문화수업 1
시간, 버디프로그램 1시간이 진행된다. 금요일은 3시 반에 모든 일정이 일괄
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쉐어룸 등)

-기숙사는 산호세 대학 내에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CPILS라는 어학원에서 생
활한다. 2인 1실이며 매주 1번씩 욕실청소, 방청소, 침구류 교체가 이루어진다.
세탁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은 월, 수 금에 여학생은 화, 목, 토에 세탁실에 맡
길 수 있으며 작성하는 세탁표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틀 뒤 찾으러 가면 된
다. 모든 것은 세탁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5. 교내·외 활동

-교내 활동은 어학원에서 체육대회를 했었다. 특별한 교외활동이 이루어진 적
은 없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학교생활은 짜여진 스케줄대로 아무 뻑뻑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성실하게만
임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주말에는 많은 학생들이 외출, 외박을 하는데 이
때 특히 한국 학생들은 한국인들끼리 모여 노는 경우가 많다. 파견학생의 경
우에는 어학원 내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현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산호세대
학교 내에 버디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대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키고 싶다면 외국인들과 만나는 것을 추천한다.
음식은 대체로 짜다. 하지만 예상을 벗어나는 맛을 가진 음식은 없다. 한식당
도 많고 대부분의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어 음식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듯하다. 교통은 많이 불편하다. 특히 금요일 저녁에는 택시와 그랩택시가 만
원이라 1시간 넘게 길에서 기다린 적도 있다. 필리핀 교통에 익숙해졌다면 지
프니를 타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오슬롭 고래상어/바디안 카와산 캐너닝

세부 여행 시 필수코스이다. 학원 내 친구들과 그룹을 지어서 투어로 가는 것을 추
천하며 인원이 많을수록 가격이 저렴하다. 오슬롭에서는 고래상어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고 캐너닝 투어에서는 절벽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데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최근에 한국인 1명이 다이빙을 하다가 착지 실패로 사망하였

다.

-톨레도

숨겨진 조용한 장소를 혼자 여행하는 것이 취미라서 아무런 계획없이 방문했었다. 현지인 선생님의 소개로 갔었는데 특별할 것이 없다. 세부 현지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싶다면 한 번쯤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세부섬 내 각 지역 대표들의 배구경기를 보았고 종교행사의 일부인 연극을 보았다.

-반타얀 아일랜드

화이트 비치로 유명한 곳이다. 세부시티에서 차로 약 4시간, 배로 1시간 정도 걸린다. 4월에 있는 축제기간인 홀리위크 시즌에 가장 큰 종교행사가 열린다. 이 시즌에 방문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인파를 볼 수 있었다. 유일하게 이 기간동안 육식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교통도 많지 않고 도로도 깔끔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빌려 여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홀 아일랜드

세부시티에서 배로 약 2시간 걸리는 큰 섬이다. 유명한 명소로는 초콜릿힐, 각종 झ라인, 안경원숭이, 해변가, 반딧불 투어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카르멘(사파리), 달라게테(오스메냐 피크), 카모테스 섬, 말라파스쿠아 섬, 모알보알 등을 추천한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많은 후배들이 아마 발음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단언컨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거의 완벽한 미국식 발음을 가지고 있다. 간혹 필리핀식의 억양이 섞인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부분에서는 과감히 코디네이터에게 말하면 선생님을 바꿀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곳인데 실제로 수업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같은 국적끼리 모여서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경우에는 한국인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만들 때 항상 거절했었다. 대신 산호세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거나 일본인 혹은 대만인 친구와 외출을 했었다. 혼자 여행가서 숙박업소 직원이나 바텐더, 택시기사 혹은 오토바이 기사들과 영어로 이야기하곤 했다. 선생님들과 만나서 밥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가지 더 조언을 하자면 학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자습실에 앉아서 책만 보는 식의 공부방법은 권하지 않는다. 필리핀에 가면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극단적인 상황에 자신을 두는 것이 영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는 배우는게 아니라 사용함으로써 향상되는 것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CPILS어학원 외부)



(CPILS어학원 내부)



(CPILS어학원 내부)



(CPILS어학원 내부)



(산호세 대학교 외부)



(산호세 대학교 내부)



(Amazing Challenge 체육대회)